Examining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God-Images and Reconstructing Holistic God-Images

통전적 하나님 이미지의 구성: 성인 애착 경험을 중심으로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ongbae Choi

May 2017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Jongbae Choi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Samuel K Lee, Chairperson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7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God-images of worshipers in relation to their experiences of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Christians who experience stable attachments with their parents show stable attachments to their God-images. However, those who have developed unstable attachments to their parents also show unstable attachments to their God-images. The image that one develops through one's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one's developed God-image.

Keywords: Attachment, God-image, God representation, Internal working model, Secure base, Patriarchal God

SUMMARY

This study is about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God-images. Even though the scriptures manifest a variety of God representations, it is mostly the image of “father” that is used in the church through worship and prayer. How have Christians developed their images of God? Was it not difficult for Christians to learn to perceive God as father?

Adults’ experiences of attachment influence their development of God-images. For this project, I engage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analyzed the participants’ stories.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with their parents and the images of the God in whom they believe. Through this qualitative research, I have learned that the images of God Christians believe in is strikingly similar to their images of their parents. This means the experience of attachment to their parents strongly influences people’s understandings of God. For those who have developed unstable attachment relationships, the church needs to provide a variety of ways of interpreting God so that believers can gain new images of God as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father image.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Introduction)

A. 연구의 의미와 목적

부모와의 애착 경험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신자는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하나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목회자로서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성도들을 돕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존재한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신자의 삶과 교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마냥 친절하고 상냥한 분으로 인식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엄한 아버지나, 무서운 선생님으로서 인식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의미와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는 각양 각색일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애착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 경험은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을 통한 인간 관계의 경험과 하나님 표상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나는 애착관계의 유형에 따라 하나님의 표상이 형성되며 그 영향으로 삶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육자와의 관계이다. 부모 자녀간 형성된 애착 관계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애착 유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상과 지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나아가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표상을 형성할 때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아상도 부정적이며, 타인에 대하여도 부정적이게 된다.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도는 하나님을 표상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도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개인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듯 하나님에 대하여 형성된 표상 역시 성도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 하나님 표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삶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한다.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 볼 때 분노와 공포로 가득한 곳이 아닌 선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한다. 무엇보다 개인이 삶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개인이 형성한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개인주의로 치닫는 오늘 날 긍정적 하나님 표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를 넘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1] 반면 부모와의

[1]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of God 인간관계 경험과 하나님경험,* trans. 이재훈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1998), 119.

불안정 애착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표상은 개인의 신상과 삶,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부정적 모습을 만들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영혼의 삶을 돌보는 목회자로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 힘들어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B. 주요 용어에 대한 이해

1. 애착

애착은 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지만, 떨어져 있거나 먼 거리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 지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 애착은 사람이 처한 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애착은 일종의 기대감이다.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다. 나와 연관된 애착 대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운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통해 형성된 기대감은 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 가령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위안과 평안을 심리적으로 불러일으킨다.[2] 그러므로 애착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상이하다. 애착대상과 형성된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자아로 하여금 외부환경을 탐색하는데 자신감을 고양시키며 안전기지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3] 애착대상과의 애착이 완성되면 자아는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살게 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세운

---

[2] Jeremy Holmes,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존 볼비와 애착이론*, trans 이경숙 (서울: 학지사, 2005), 115.

[3] 이문경, *유아기 부모애착이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애착에 미치는 관계*, (계명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2014), 9.

계획을 실행하고 자신과 타인, 주어진 여건들을 탐색하는 편안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4] 애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감정적으로 연결된 지속적인 정서감이라 할 수 있다.

2. 내적작동모델

내적작동모델은 아동이 부모나 양육자 사이에서 스스로 형성한 내적 표상이다. 성장 과정 중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아에 대한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모델이다. 아동기에 형성된 내적작동 모델은 자신의 성격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안정애착을 형성을 아동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반응을 보이게 되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고, 타자와 세상은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게 된다.[5]

내적작동모델은 안정적인 반면 유동적이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작동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 경험한 작동모델이 주어진 현재의 현실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새롭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형성된 작동모델은 수정되어야 하고, 만약 이미 형성된 작동모델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 발생하게 된다.[6]

3. 하나님 표상

---

[4] Holmes, 116.

[5] 이향숙,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애착관계*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31.

[6] Mario Marrone, *Attachment and Interaction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trans. 이민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104-05.

표상이란 말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의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나의 마음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나 상을 의미한다. 내 안에 이미 형성된 표상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속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표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내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수시로 변화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내면에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표상의 형성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7]

리주토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하나님 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리주토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탄생 과정'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한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가 부모를 통해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유아를 양육한 부모보다 더 자상하고, 위로하며, 용기와 영감을 북돋아주게 된다.[8]

4. 안전기저(secure base)

---

[7] 추원심, *애착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5), 12.
[8] Clair, 39.

'안전기저'는 애착대상이 제공하는 안전감이다. 이 용어는 Ainsworth(1982)가 도입한 용어이다. 위협에 처한 아동은 위협으로 보호 받기 위해 자신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애착대상을 찾게 된다. 애착대상이 아동이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면 아동은 다시금 평온해지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위협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다. 아동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이다. 고통으로 인해 칭얼거리는 아이가 애착대상이 안아 주었을 때, 안전감을 느끼며 울음을 그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애착대상이 제공하는 적절한 보살핌으로 위협이나 신체적인 아픔이 해소되면 아동은 더 이상 애착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안전기저가 발동되는 때는 아동이 애착대상으로부터 안전감을 찾을 때이다. 이로 보아 안전기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안전기저 현상은 비단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성인도 낯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경계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신뢰를 느끼고 있는 지인과의 관계나 활동에서는 불안감 보다는 안전감을 느낀다. 즉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을 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보호할 것이라는 안전감을 느끼며 활동을 하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9]

5.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남성지배의 제도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가부장제적 사회는 '아버지들의 지배'가 가정과 사회 등의 모든 사회적 조직의 기본적 원리를 이루는 사회이다. 가부장제에서 가정의 아버지는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결정권을

[9] Holmes, 330.

지니고 있다. 남성 아버지의 힘과 권한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차원에까지 확장된다. 사회적 생활양식으로서의 가부장제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가부장제가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서 가장 원래적인 형태의 사회 구조로서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다른 이들은 가부장제는 특정한 때에 토지의 사유화, 도시화, 사회의 계층화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고대근동에서 가부장제는 기원전 7000-4000 년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기독교 사회와 신학적 형성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세계와 그리스 로마시대의 사회나 종교문화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양식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부장제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다. 즉 여성은 그들 자신 스스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 대한 견해는 사회 속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계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둘째,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사회가 된다. 셋째, 부인에 대한 남편의 주권은 육체적인 영역에도 확대가 되어 폭력의 행사가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넷째, 부인으로서의 여성의 몸, 성, 출산능력들은 남편에게 예속된다. 다섯째, 여성들이 정치와 문화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능력은 가사와 같은 사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제한 된다. 여섯째, 부인과 딸의 상속권이 남편과 아들들의 그것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특징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가 다분히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10] 나는 가부장제를 여성을 향한 남성의 지배구조라 생각하고 정의한다.

C. 문헌자료의 평론적 검토

1. 하나님 이미지 이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논함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의 차이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이다.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다양하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논한다는 것은 어느 한 학자의 의견이나 견해로 단정지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이미지는 형상(Imago Dei)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11] 구약성경 출애굽기 20 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십계명 중 제 2 계명을 통해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12]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과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형상이 없는 존재이다.

---

[1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4.

[11] 조남희,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집단 목회상담 프로그램 연구,(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9.

[1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말며"(출애굽기 20:4 개역개정판).

이와 달리 성서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 창세기 1 장 26-28 절이다.[13] 이 말씀은 인간 창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였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다.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유사성에 대하여 주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인간의 경이로운 신체적 외관은 결코 하느님 모습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하느님 모습이란 표상은 본래에는 신체적 외관에서 비롯되었다.………따라서 가능한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14]고 말한다. 이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 이미지를 인간 존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가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더욱 확실하게 살필 수 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15]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4 장 4 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 말한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로 인하여 계시된다. 예수의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는 하나님 형상의 계시인 것이다.

심리학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표상(表象)이다.

---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6-27 개역개정판).

[14] Gerhard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sesis 창세기, trans.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et al. (서울:한국신학연구소, 2006), 61.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골로새서 1:15 개역개정판).

프로이트에 의해 처음 사용된 표상이란 용어의 뜻은 “어린아이의 개념 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생(revival)과 회복(restoration)”이며, 후에 정신분석학 근본 개념인 대상 표상(object representation) 개념이 되었다. 이로 보아 표상이 형성되는 데는 실존 대상이 있어야 하며, 표상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정신세계이며, 관념의 세계이다.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생성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실존하기 때문이다. 부모이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그 이론의 중심에 두었으며, 아이가 아버지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가 바로 신의 이미지가 제공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요소라고 했다.[16] 즉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신의 이미지와 부합된다는 것이다. 신 개념의 원천으로서 아버지 상을 이해한 것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 종교이해에 기여한 점이라 할 수 있다.[17] 프로이트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리주토는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을 비단 오이디푸스적 갈등에 국한 시키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뛰어 넘어 중요한 사람 또는 중요한 인물들과의 정서적 관계 형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18]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 분야는 대상관계 이론들이다.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 구조들을 깊이 연구하는

[16]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살아있는 신의 탄생*, trans. 이재훈 et al.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38.

[17] Ibid., 41.

[18] Clair, 39.

학문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과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살 필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자라는 가정 환경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게 한다. 하나님 이미지가 발달하는 곳은 가정이며, 가정 안에서 형성되는 최초의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초석이 놓이게 된다. 가정을 토대로 이뤄지는 하나님 이미지는 특별한 대상 표상이다.[19]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대상 표상이다.

1) 신학적 관점의 하나님 이미지

성서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이미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한 하나님 이해는 가시적(visible)이고 은유적인 방법이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왕, 아버지, 어머니, 목자, 사랑하는 분, 바위, 바람, 빛 등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가령,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사(戰士)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사의 삶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비로운 이미지나 의로운 이미지를 갖은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자비로운 삶,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할 것이다.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쉽게 분노할 것이다.[20]

---

[19] Ibid., 23.

[20] Marcus J. Borg, *The God We Never Knew 새로 만난 하느님*, trans. 한인철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99-100.

성서는 다양한 하나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출된 이미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적 지도력: 왕, 군사, 전사, 심판자, 율법의 수여자로서의 하나님
> 일상적인 인간생활: 집 짓는 자, 정원지가, 목자, 옹기장이, 병 고치는 자 혹은 치유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 현명한 여인, 노인, 아이 낳은 여인, 친구로서의 하나님
> 자연과 생명 없는 대상들: 독수리, 사자, 곰, 암탉, 불, 빛, 구름, 바람, 숨, 바위, 요새, 방패로서의 하나님[21]

성서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성서의 언어가 은유적 언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이미지는 은유이다.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들과 문자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가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존재가 경험하는 수염이 있고 머리가 하얀 아버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표현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이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전적 타자이다.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피조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관련이 없는 영원이다.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은 넘어설 수 없고, 알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22]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묘사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존재유비(存在類比)도 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언어로는 전적

---

[21] Ibid., 101.
[22] 김명룡, *칼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75.

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 존재의 정의가 불가능하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은유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표상하고 이미지한다. 왜냐하면 은유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조지 케어드는 “성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모든 언어는 은유다.”라고 말했다. 케어드의 말은 많은 현대 성서학자들이 공유하는 의견이고, 성서에서 사용된 은유의 중요성을 확증하는 말이다.[24]

성서에 사용된 은유는 한가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의미를 포함한 은유는 듣는 이들에게서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하여 연상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 진술로 기록된 하나님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번역 될 수 없고, 듣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은유는 하나님 이미지를 읽고 대하는 사람을 일깨우는 힘이 있다. 가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성찰 필요가 있다.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에 국한 되지 않고, 어머니, 빛, 바위, 바람, 왕, 사랑하는 사람, 숨 등 각각의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찰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은유를 통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이미지를 형성한 자아의 깊은 내적 성찰을 이루게 된다.[25]

---

[23] 김균진, "Sallie McFague 의“친구 하나님”모델," http://stchopeter.blog.me/150041763013 (Accessed Feb 13, 2017).

[24] 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은유신학,* trans. 정애성 (서울: 다산글방, 2001), 84.

[25] Borg, 102.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이미지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이미지와 비신인동형론적(nonanthropomorphic) 이미지이다. 신인동형론적 이미지는 하나님을 인간적 형태로 표상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비신인동형론적 이미지는 인간 외의 자연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이다. 왕, 군주, 심판자, 법의 수여자, 옹기장이, 목자, 지혜로운 여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 치유자의 이미지는 전자에 해당하고, 바위, 불, 빛, 독수리, 사자, 곰, 암탉, 구름, 바람, 숨, 요새, 방패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멀리 있음의 이미지(image of distance)와 가까이 있음의 이미지(image of closeness)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감으로 멀게 느껴지는 왕, 심판자, 법의 수여자, 전사(戰士)와 같은 이미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가부장적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님에 대한 멀리 있음의 이미지이다. 왕은 서민들의 삶의 자리와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 싸인 왕궁에 살고, 일반 백성과 거의 접촉이 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가부장적 가정의 아버지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 가부장적 가정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고, 가정의 작은 왕으로 군림한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와 반대로 목자, 어머니, 사랑하는 자, 친구, 치유자, 방패, 요새 등의 이미지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음에 해당하는 이미지이다. 세 번째 범주는 남성 이미지(male image)와 여성 이미지(female image)이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이다. 이는 성서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권과 성서의 기록자들이 남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여성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하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이를 낳는 어머니, 현명한 여성 등에 해당하는 이미지이다. 여성적 하나님 이미지가 성서적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물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이미지들도 있다. 가령 목자, 옹기장이, 사랑하는 자, 친구 등이다. 목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자 목자와 여자 목자를 생각하게 된고, 친구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를 생각할 수 있다.[26] 양성적 이미지의 활용은 성의 장벽을 넘어서게 한다.

다양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모델

모델이란 무엇인가? 맥페이그는 모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일차적이고 상상적인 단계에서 이차적이고 개념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종교 언어 속에서 어떤 혼합된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델이다. 모델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는 그것을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은유, 즉 힘이 있는 은유로 보는 것이다."[27] 즉 모델은 은유적 언어에서 개념적 언어로 나아간 단계이다. 모델이 된 은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유의 특성을 넘어 개념적 사유에 도달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왕, 군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들을 수렴하는 "군주적(君主的)

[26] Ibid., 105-06.
[27] McFague, 53.

모델”(monarchical model)이다. 다음으로 친밀한 관계와 소속감을 가리키는 하나님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영(靈) 모델”이다.[28]

군주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우주를 지배하는 권위적인 남성의 이미지이다. 지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배와 복종의 이미지들은 군주적 모델의 중심이다. 지상의 왕이 남성이기에 하나님도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왕은 힘이 있기에 하나님도 힘이 있고, 왕이 법을 제정하고 수호하고 심판하듯이 하나님도 사회 질서와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신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거리감이 있다. 왕은 서민들과 거리가 있는 존재이듯, 왕으로서의 하나님도 백성들과 거리가 느껴지는 존재이다.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자리는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농부이며, 신하이다. 신하로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성과 복종이다.[29]

군주적 모델이 하나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멀리 있지만 힘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이다. 군주 모델은 ‘거리’를 기본으로 한다. 지상의 왕이 머무는 왕궁이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왕의 힘은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왕이신 하나님 역시 그러하다. 두 번째로 남성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이다. 세 번째로는 법의 수호자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다. 법을 수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 죄를 범하고 징벌

[28] Borg, 106.
[29] Ibid., 109-11.

받아야 하는 인간, 죄를 사하는 속죄, 자비의 하나님, 영원한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30]

군주적 모델의 하나님 이미지는 사회구조와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남성적 이미지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같이 간다. 남성 정치인, 남성 종교인, 남성 가장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구조는 가부장제로 정의된다. 공교롭게도 가부장적 정치, 종교, 가정은 모두 군주적 하나님 모델과 연관된다. 남성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은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한다.[31]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미지화 할 때 남성은 신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면 여성은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가부장적 구조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32]

가부장적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 모델의 문제점

하나님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모델은 가부장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하나님의 본성만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 가부장제는 서구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성화한다. 가령 왕, 아버지, 남편과 같은 이미지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가부장적 이미지는 삶의 방식이 된다. 국가, 공동체, 사업, 가정 안에서 남존여비의 틀로 작용한다. 특히 가부장적 모델은 유대-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잘 들어난다. 가부장적 모델의 특징은 여성들을 배제하고, 소외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며, 신학적으로

---

[30] Ibid., 112.
[31] Ibid., 119.
[32]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9.

아버지 하나님 모델은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모델에 전제된 특성이 망각되고 한 모델의 방식이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간주될 때 그 모델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어떤 모델이 우상이 되면 그 모델의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거리가 무너지게 된다. 가령 아버지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며 다른 모델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33]

이런 우상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넘어선 여성적 하나님 모델의 활용이 필요하다. 군주적 하나님 모델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영 모델이다.

영(靈) 모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관계성, 친밀감, 귀속감을 강조하는 하나님 이미지들과 결부된다. 군주적 모델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대표하는 왕, 군주, 아버지 이미지와는 다르다. 이 모델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지혜(Sophia)로서의 하나님, 애인으로서의 하나님, 여행 동반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나타낸다.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아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어머니와 같다. 이사야 49:15 에 등장하는 젖을 먹이는 여인, 아사야 66:9 에 등장하는 출산하는 어머니, 이사야 66:12-13 에 등장하는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 마 23:37 절에 등장하는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어미 닭, 민수기 11:11-12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 낳은 하나님 등과 같은 묘사를 통하여 어머니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머니 이미지는

[33] McFague, 28-29.

자녀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이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34]

지혜(Sophia)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성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적 하나님 이미지이다. 히브리어 여성명사로 사용된 지혜는 "지혜 여성", "지혜로운 여성"에 해당하는 이미지이고, 잠언 1 장 20-33 절, 3 장 13-19 절, 8 장 22-31 절에 등장하는 지혜의 이미지는 여성으로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이다. 지혜는 신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곳에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 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여성적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다. 지혜로운 여성 이미지로의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요, 수단이며, 창조 질서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잔치로 불러 모아 흥겹게 하시는 분이다. 지혜 이미지는 가까움과 현존, 인도와 양육을 함축한다.[35]

애인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두루 발견되는 이미지이다. 더불어 배우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다. 애인과 배우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우리들이 어떤 대상인가를 알게 한다. 우리는 애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구약 성서 중 호세아 2 장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호세아는 애인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사용해서 외도하듯 하나님을 등지는 당시 이스라엘을 비판한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애인 이미지의

[34] Borg, 125.
[35] Ibid., 127.

하나님은 질투하듯이 화를 내지만, 사랑하는 연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애인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갖는 함의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 받는 자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찾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이다. 애인 하나님 이미지는 일상을 뛰어넘는 극도의 친밀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극도의 친밀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36]

여행 동반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출애굽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며, 양육하고 보호하는 차원의 목자로서의 이미지가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 시편 23 편에 등장하는 목자의 이미지이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시냇물로 인도하고, 쉴만한 곳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무리를 이탈한 양들을 찾아 나선다. 이런 목자의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과 길을 함께 가는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들어난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길을 걸으며 여행을 하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고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그들의 근심을 덜어준다. 목자 하나님 이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선한 목자로 표현한다.[37]

군주 모델과 달리 영 모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감의 회복이다. 군주 모델에서 보여진 하나님 이미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영 모델의 하나님 이미지는 가까움을 나타낸다.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 모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36] Ibid., 127-28.
[37] Ibid., 129.

이미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는 이미지이며, 우리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이다. 두 번째, 배타적인 남성 이미지보다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와 같고, 지혜로운 여성과 같다. 영 이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한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이다. 사랑하는 자로서의 연인 이미지, 동반하는 자로서의 친구 이미지, 인도하고 먹이고 함께하는 목자의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에 국한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다. 성서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는 성서적 근거들을 제공함으로 언어상의 성적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이미지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38]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연구 작업의 중요한 의미는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인 은유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가운데 보다 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은유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잘 사용되지 않은 하나님 이미지를 발굴함으로 교회에서 이뤄지는 기도나 찬송에 다양한 하나님 이미지가 표현된다면, 남성에게나 여성에게 있어서 영적 감수성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39]

2) 심리학적 관점의 하나님 이미지: 리주토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은 표상이다. 표상(representation)이란 말의 의미는 원래의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 또는

---

[38] Ibid., 129-30.

[39] Dania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trans. 장경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08.

형상이다.[40]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에 실재하는 하나님 표상을 연구한 사람은 리주토이다. 리주토가 연구한 하나님 표상은 종교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종교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이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하나님 표상에 대한 연구이고, 하나님 표상의 후기 발생적 및 발달적 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하나님 표상의 사용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41]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가? 리주토는 개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리주토의 저서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은 한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신 표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 표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42] 리주토는 하나님 이미지가 아동기를 통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전성애를 걸쳐서 어떻게 수정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살아 있는 신의 탄생"이라 불렀다.[43]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리주토는 사람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사이에는 일정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리주토는 20 명 환자를 연구 대상자들로 선정을 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과 면담, 특히 그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삶과 갈등들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리주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 속에서 그들만이 인지하고 경험한 다양한 인간 관계의 성질을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였다. 이런 분석 작업을 통해

---

[40] 미국정신분석학회,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정신분석용어사전,* trans. 이재훈 et al.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561.

[41]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살아있는 신의 탄생*, trans. 이재훈 et al.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338.

[42] Ibid., 17.

[43] Ibid., 84.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형성은 초기 아동기 또는 다른 연령기에 경험되어지는 인간관계처럼 복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성질은 불완전하고 역동적이며 모호하다. 또한 개인의 정신적 경험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파편화시킬 수도 있는 두 가지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44]

리주토는 연구 대상자들이 하나님 이미지를 표상하는데 단 하나의 이미지, 가령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실제의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바라는 부모의 이미지, 또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부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45] 리주토는 연구 대상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할 때는 저마다 사용한 객관적인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제도권의 종교가 이들 각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46] 리주토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표상화하는 데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자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 단계의 발단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형성하게 된 것인가? 리주토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단계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자가 저마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표상화 하는

---

[44] Clair, 37.
[45] Rizzuto, 87.
[46] Clair, 38.

과정 중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을 연구하였다.[47] 리주토는 하나님 이미지가 표상되는 발달 단계가 비단 오이디푸스기에 국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표상되는 시기는 어느 발달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순간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상과 가졌던 지배적인 정서적 경험이다.[48] 그러므로 각 개인이 형성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표상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가 경험한 양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각인된 지배적인 정서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리주토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의 시기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초기 아동기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발달된다.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다.[49] 이 두 가지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다. 초기 아동기를 보내면서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을 부모로부터 형성한다. 즉 아이가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지배적인 정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아이가 부모와 경험하는 지배적인 정서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50] 리주토는 3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는 하나님과 지배적 정서 경험의 주된 대상인 부모가 직접적인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표상과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일치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부모의 표상이 서로 상반되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를 통해

47 Ibid., 38.
48 Rizzuto, 88.
49 Clair, 23.
50 Ibid., 24.

경험되는 지배적인 정서 경험과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인색한 부모로 표상된다면, 이에 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으며 잘 받아주는 하나님으로 표상화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하나님과 부모는 정반대편에 위치하며 자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위의 두 경우가 조합되는 경우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일치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상반되는 경우이다.[51]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와 관계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가족의 기도, 이야기, 부모에게 하는 질문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를 창조한다.[52]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각 개인 발달 과정에서 형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가족관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복합적인 이미지라는 것이다.[53]

인간관계의 경험과 하나님 경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는 대상관계 이론의 통찰들을 사용하여 종교 경험들의 몇몇 측면들을 조명하였다. 무엇보다 종교 경험들과 심리적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 대상관계의 발달 과정은 부모의 돌봄의 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어머니가

---

[51] Rizzuto, 172.
[52] Clair, 25.
[53] Ibid., 40.

제공하는 돌봄의 질과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유아는 생의 초기에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렇지만, 이런 의존은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의존을 거쳐 다른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독립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물론 발달의 단계상 전진과 후퇴를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렇게 발달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 표상은 인간관계의 발달을 반영하며 인간관계의 발달과 함께 발달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의 특징들은 아이가 기본적인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시기에 형성된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하나님 표상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표상들 사이의 연결은 다양하다. 부모의 특성들과 하나님 표상의 특성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속성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정반대일 경우도 있다. 가령, 실제의 부모가 거부적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그의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보호해 주는 분일 수 있다. 또는 하나님 표상과 부모 표상 둘 모두 좋고 나쁜 성질들이 혼돈되어 있을 수도 있다.[54]

리주토의 공헌과 한계점

리주토의 공헌은 하나님 표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던 프로이드의 견해를 확대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하나님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만을 인정했으나 리주토는 하나님 표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조부모와 형제자매들과의 다양한 사건, 믿음의 환경적 체계,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리주토는 양육의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역할이 우선시되고 주요함을 강조한다.

[54] Ibid., 55.

리주토는 어머니와의 경험이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 심리적 공간을 형성한다고 보았다.[55] 리주토가 하나님 표상이 형성되는 것을 아버지를 넘어 다양한 대상들로 확장시킨 것은 주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즉 개개인이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연구하면 개인이 인지하는 양육자에 대한 이해와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 표상과의 상관성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주토는 하나님 표상의 형성은 유아기적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단단계의 여러 과정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수정되고 변화된다고 하였다. 리주토의 이론은 대상관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표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리주토의 이론은 하나님 표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하나님 표상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과 하나님 표상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표상과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 표상과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하나님 표상과 제도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표상과의 조화를 추구함으로 건강한 하나님 표상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헌과 달리 리주토의 신 표상 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환상적 중간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56] 아이들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중간적 대상들, 즉 인형, 상상 속의 친구, 안전한 느낌을 주는 담요 조각과 같은 것을

---

[55] 반신환, *신 형상에 대한 리주토의 대상 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종교연구*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7), 224.

[56] Rizzuto, 329.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듯이 환상과 물리적 실재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위안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주토의 견해는 환상적 대상이 아닌 실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리주토의 하나님 표상 이론이 비서구권에서도 통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반신환은 리주토의 이론을 관연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다. 특히 청소년기 이후에 개종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 표상 이론을 통해서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리주토의 이론이 문화적 신념 체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57]

마지막으로 리주토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이다. 리주토의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성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반대로 성숙한 개인들을 위해 종교가 담당하는 긍정적 역할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다루지 못하였다.[58]

리주토의 이론을 통하여 양육자와의 관계가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작용을 한다는 심리적 요인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육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통하여 양육자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애착의 유형은 4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안정애착이다. 애착대상과 안정애착을 이룬 자아는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57] 반신환, 228.
[58] Clair, 48.

활용한다. 마치 어린 유아가 애착대상인 어머니를 편안한 심리적 안전기지로 활용하는 것과 같다. 양육자인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놀이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찾게 된다. 어머니를 발견한 어린 유아는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놀이를 지속하게 된다. 둘째, 불안정-회피 애착이다. 이런 유형은 자아가 애착 대상과 타인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유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 애착대상과 신체적인 접촉이나 상호 교류를 하지 않고 친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애착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에도 찾지 않으며 애착대상이 돌아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불안정-회피 애착의 상태에 놓인 유아는 더 이상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 셋째는 불안정-양가적 애착이다. 자아가 애착대상에게 집착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 놓인 유아는 대부분 주변을 관찰하고 탐색하기 보다는 애착대상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집착하게 된다. 애착대상이 있어도 울고 보채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을 보이는 상태이다. 자아는 분리에 대한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재 결합시 안정감적인 반응이 아닌 분노와 집착의 양가적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다.[59] 넷째는 불안정-혼돈 애착이다. 불안정-혼돈 애착에 놓인 자아는 회피와 양가적 반응을 복합적으로 보이게 된다. 낯선 상황에서 자아가 애착 대상을 만나게 될 때 보이는 반응이 몹시도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뒤 돌아서 멀리 가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가령 유아가 양육자를 만났을 때 가까이 다가서다 중간쯤 뒤돌아 서서 뒷걸음질하는

[59] 추원심, 6.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관계가 바로 불안정-혼돈 애착관계이다.[60]

애착 유형과 내적 작동 모델과의 상관 관계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미치게 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안정애착은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아상과 가치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만들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반면에 불안정 애착은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불안정 애착의 영향은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 불안, 좌절, 수치감, 죄책감, 자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속에서도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61]

양육자 애착과 하나님 애착과의 관계성

부모를 애착 대상으로 여기고 성장하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커크패트릭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이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62] 그는 일치가설과 보상가설이라는 두 가지 이론으로 하나님 애착을 설명하고 있다. 일치가설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즉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애착도 안정애착으로 형성하게 된다.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반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고 받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

[60] 이은실,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11-15.

[61] Ibid., 19.

[62] 이향숙, 98.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애착을 형성할 때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즉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애착을 형성할 때도 마치 양육자가 멀리 있고 거리감이 있으며 양육자에게 별 관심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며 거리감이 있고 심리적 안정감 보다는 차가운 분으로 여기게 된다. 이로 보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애착은 양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형성된 애착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이전에 형성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며, 하나님 애착이 개개인 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애착의 정도와 양육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63] 커크패트릭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을 인지할 때 사랑이 많고 가까이 접근 가능하며, 덜 통제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이들이다. 반면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이들은 하나님 애착을 형성할 때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애착 대상에 대한 인지는 자신에 대한 인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애착 대상을 사랑이 많은 분, 잘 돌 보는 분으로 인지하게 되면, 자신을 인지할 때도 '나'라는 존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며, 돌봄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64]

---

[63] Ibid., 99.

[64] Ibid., 100.

커크패트릭의 보상가설은 두 가지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첫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여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유아는 형제나 또는 다른 이들 중에서 자신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들을 중에서 애착대체인물을 찾게 된다. 둘째, 영아기에 안정애착의 대상이었던 부모에게 갑작스런 사고나 이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발생해서 안정 애착이 불안정 애착으로 변할 경우 유아에게 부모를 대신한 애착대체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유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65] 보상가설의 주된 요지는 설령 주된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채워지지 않은 심리적 안정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과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다.

2. 청중과 대상

본 연구의 1 차적 대상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 신자들이다.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들의 뇌리 속에는 자신을 억압하고 고통을 가한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들이 오버랩 될 것이다. 한 동안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설령 하나님은 아버지라 인식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국한된 이해일 것이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 비해 더욱 극심한

[65] Ibid., 103.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돕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2차적 대상은 목회자들이다. 목회자들 역시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가정에서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와 성서 속에서 이해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역시 자신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어느 목회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이는 비단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목회 현장에, 성도와의 관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형상을 수정하고, 가부장적 아버지 형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3차적 대상은 성도와 목회자이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듯이 성도도 개 교회의 목회자와 애착의 관계를 형성한다. 목회자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한 성도의 교회 생활은 그렇지 못한 성도의 교회 생활과는 상이하게 다를 것이며, 신앙의 성장 또한 다를 것이다.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4차적 대상은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성도들이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불안전 애착을 형성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질문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제한점

본 연구는 성인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토대로 하여 애착관계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양육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가 있다면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회복하는 대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성인 성도 3 명을 면담한 후 그것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교회 전체 성도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연구 대상자가 3 명으로 제한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의 전반적인 하나님 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질적연구의 최종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그러한 깊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을 읽는 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연구 참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연구가 이뤄졌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 양육자와의 다양한 애착관계, 신앙심의 깊이 정도의 차이 등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면 보다 더 폭 넓은 연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들을 주관적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이 양육자와 경험한 애착과 하나님 표상의 상관성,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회자들이 설교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는 하나님 이미지와 실제적으로 양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차이를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양육자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과정을 심화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Ⅰ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목적, 주요 용어에 대한 이해,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자료에 대한 평론적 검토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하여 신학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이미지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하여, 청중과 대상, 제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성인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에 대한 질적연구방법,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Ⅱ

A. 성인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에 관한 질적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한 하나님 표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질적 면담방볍을 활용하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애착을 살피고, 그 영향이 하나님 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필 것이다. 나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서 성장한 성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여, 그것의 영향이 하나님의 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 만일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 표상을 간직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하나님 표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가운데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힘든 성장기를 보낸 성인 신자들의 내면을 탐구할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으며, 그 기억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해 신앙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살필 것이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혹독한 성장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회복한 이들이 있다. 그들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면담

본 연구에 있어서 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의 시간은 1 시간 가량이었으며, 참여자에게 참가동의서(부록 A)를 설명하고, 동의가 있으면

진하였다.[66] 면담 시 이뤄지는 질문은 가족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었다(질문지는 부록 B 참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부모와 형성된 애착 관계의 경험이 하나님 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폈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내적 영향들이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억압과 폭력 등으로 얼룩진 내적 자아의 모습을 살폈다. 또한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면담하였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참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하게 살핀 후, 그에게 일어난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살폈다. 무엇보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성장기에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표상화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혹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화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를 면담하였다.

이 같은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자료수집의 방법이다. 참여자의 정보를 유추해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면담 질문들을 계획하였다.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비구화된 면담으로 시작하고, 면담하는 질문의 내용은 참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부모 애착과 하나님 표상 형성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면담이 이뤄지는 동안 면담 방향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참여자를 의존하고 참여자의 생각을 따랐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담의 형태는 단독 면담, 즉 개별 연구 참여자와 만나는 일대일 면담으로 이뤄졌다. 내가 행하는 면담은 내담자의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

[66]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에 제출한 연구제안서는 2015 년 11 월 4 일에 승인을 받았다.

계획 되었기에 불균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참여자의 감정, 인지, 사고에 대한 발견으로 이끌어 갔었다. 참여자의 애착 관계를 통한 하나님 표상 형성과 회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면담할 때 참여자가 엉뚱한 말들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행할 경우 약간의 통제를 가했다. 면담 시 참여자와 눈을 맞추고 참여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자가 하는 말의 의도, 동기, 선택과 관련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67]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할 경우, 연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 가령 참여자가 경험한 과거의 일들로 인한 아픈 상처를 되뇌이며 말할 때,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동의서를 작성할 때 면담 시 이뤄지는 갑작스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치료자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동의를 받았다.

2.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검증

질적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은 1985 년에 린컨과 구바에 의해 제시된 '신뢰성' 준거이다. 린컨과 구바의 신뢰성 준거는 크게 신뢰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4 가지 준거는 질적연구에서 가장

---

[67]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25.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이 중 신뢰성은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68] 신뢰성을 위해서는 타당한 해석을 보장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충분한 기간의 집중적인 관찰, 심층기술,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참여자가 연구자의 해석을 검토하는 것 등이다. 전이성은 결과 또는 발견이 다른 맥락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의존성은 다른 사람이 연구 절차와 과정을 추적하게 하는 것으로, 감사 절차를 포함함으로 달성된다. 확증성은 결과, 결론, 제안이 자료로 뒷받침 되고 해석과 실제 증거간의 내부적합성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69]

본 연구의 신뢰성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확증할 수 있다.

먼저 충분한 기간의 집중적인 관찰이다. 질적연구에서 믿음직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 관찰을 해야 한다. 물론 현장을 녹화하여 그 녹화된 테이프를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오랜 시간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7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면담하는 시간 동안 녹음 하였다.

심층기술은 신뢰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준거이다. 심층기술은 설명할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로 하여금 연구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기술이다.[71] 이를 위해 가능한 녹음된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가능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녹취하고, 녹취한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지와 메모를 활용하였다. 철저히 분석하는 과정 중에 연구자가 던진 질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수정하였다.

---

[6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626-27.

[69]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471.

[70] 김영천, 627.

[71] Ibid., 634.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은 동료 연구자에 의한 비평의 과정이다. 이는 연구 과정에 동료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1 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1 인 연구자가 행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72] 본 연구의 경우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목회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을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관성 연구가 흥미로운 주제이며,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묘사의 다양성을 잘 고려하여 연구하고, 본 연구자가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대안적 여러 이미지에 대하여 오늘 한국교회에 적응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권면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연구자의 해석을 검토하는 것은 질적연구의 타당도 작업에서 중요한 준거 중 하나이다. 우리 말로 하면 '구성원 검토작업'으로 번역 가능하다. 즉 연구자가 내린 결과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의 참여자 중 몇 사람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 결과나 보고서를 읽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현장에 있었던 연구 참여자가 연구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73]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논하였을 때 연구의 해석과 결과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3. 연구의 윤리성

---

[72] Ibid., 635.

[73] Ibid., 636.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행하는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유념하였다. 첫째, 묻는 내용이다. 즉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생활에 관한 것이나 참여자가 이야기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들은 묻지 않았다.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답변들은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보관은 녹음 파일과 내담자와의 면담 기록지는 암호화하여 보관 하였으며, 금고에 보관하여 타인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였다.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관계형성 및 타인을 상담함에 있어서 면담된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질문하는 방법이다. 참여자를 속이거나 혼란 시키는 질문, 참여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통명스러운 질문을 피하였다. 셋째, 참여자로 하여금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가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면접의 비밀성과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즉, 비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대처하며,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담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다섯째, 이 연구가 끝난 후 연구와 관련된 녹음 자료, 기술 자료는 삭제하고, 면담 내용을 출력한 인쇄 자료는 분쇄하는 절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하기로 설명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성인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에 대한 질적연구방법,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다룰 것이다.

Chapter Ⅲ

연구 결과 및 해석(Results and Interpretation)

A. 연구 참가자의 인적 사항

3 명의 연구 참가자들에 대한 개괄적인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 강산애: 가정 주부이며, 3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불신앙 가정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2007 년도부터 신앙 생활을 하였다.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부모님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결혼 후 남편과의 가정 생활에서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으며, 삶의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 한다.

김노을: 32 세 성인 남성이다.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며, 직장인이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대학교 3 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였다. 아내의 도움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박우리: 위로 두 언니와 오빠 한 명을 두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을 두었다. 10 살 무렵 서울로 이사를 왔다.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아버지와 순종적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신앙 생활은 고등학교 2 학년 무렵에 시작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B. 연구 결과 및 해석

면담은 40 개의 다양한 질문들로 1 시간을 기준으로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2 사람 김노을과 박우리는 1 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으나,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강산애의 경우는 2 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애착 경험을 우선 분석하였다. 성인의 애착 경험에 관한 면담의 내용을 성장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표현, 아버지와의 관계 표현,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분노 경험, 분리 경험, 거절감, 위협과 협박, 부모 경험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부모 행동에 대한 이해, 심리적 외상, 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현재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분리 경험에 대한 반응,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 아동기 경험의 교훈에 관한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성장한 가정에서 양육자와 어떤 애착을 형성하였는지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 경험이 성인이 된 지금에 미치는 심리적, 성격적 영향을 고찰함으로, 부모 애착 삶의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살 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표상과 하나님 경험을 을 분석하기 위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신앙 배경,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느낌(아동기),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 예수님과의 관계 표현,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의 원인 분석, 예수님과의 관계 표현의 원인 분석, 하나님 친밀 경험, 하나님 존재 부정과 거부감의 경험에 대한 원인 분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경험, 하나님 부인과 불신의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진 느낌의 경험, 현재 하나님에 대한 표상, 하나님 표상 형성의 원인 경험과 배경,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 분석, 죽음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 설명에 대한 변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에 대한 기대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형성의

배경과 신앙 성장에 관해 면밀히 살피고, 대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 필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 표상이 형성됨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부모가 미친 영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자신이 미쳐 보지 못하였던 내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또한 살 필 수 있었다.

3 명의 참여자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에 관한 분석은 개인별로 이뤄졌다. 이는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만들어 내는 하나님 표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삶의 자리가 다름으로 인해 그들이 만나고 인식하고 형성해 가는 하나님 표상의 다름을 보게 된다.

1. 강산애

강산애의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u>성장환경</u>

강산애의 두 여동생을 두고 있었다. 손 아래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있고, 가정의 형편상 어렸을 때 입을 보낸 막내 여동생에 대한 정보는 없다. 강산의 기억 속에 본 부모는 자주 싸웠으며, 가정 불화로 인해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할머니 손에 두 여동생과 함께 맡겨 졌다. 이 때 어머니가 둘 때 여동생을 데리고 가셨고, 자신만 할머니 손 아래서 성장하게 되었다. 주 양육자가 할머니로 변하였고, 자신만 할머니 집에 덩그렇게 남겨진 상황, 특히 막내 여동생이 입양된 사실을 기억하며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 그냥 버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구요”표현하며, 자신 또한 할머니에게 맡겨진 짐 덩어리로 인식하였다. 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집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와

더불어 자신을 키운 할머니의 애정 결핍과 학대, 부모의 별거, 어머니의 가출, 고모의 손지검으로 인해 학대 당하고 방치된 성장기의 기억이 있었다.

> *고모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 대학 보내고, 조카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한테까지 올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엄마 아빠 사랑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제가 할머니랑 데게 많이 싸워가지고 할머니가 일하는 고모에게 계속 전화해가지고 매를 맞게끔 하게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2 시에 일어난 일인데도 밤 9 시나 10 시에 저는 무조건 고모한테 맞아야 했어요. 할머니가 이르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혼자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어요.* [74]

부모님과의 관계

잦은 가출을 했던 아버지에 대해 강산애는 불신이 깊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결국 지켜지지 않을 약속임을 알면서도 믿으려 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부정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 표현

강산애는 어머니의 관계 표현을 원수, 원망, 증오, 사랑, 포용으로 나타냈다.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의 인생 실패에 대한 조모의 반복된 말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여동생을 입양 시키고,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원망하였다. 강산애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산애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었다. 강산애는 스스로 어머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포용을 가지고 있었다. 강산애가 스스로

---

[74] 이탈릭체글꼴은 모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이다.

버림 받음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고 하고 스스로 어머니를 포용하려고 한 것은 어머니와의 실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다시 만난 후 어머니와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으며, 어머니를 애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하여 강산애는 그리움과 미움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배로 낳은 자녀들을 다시 모으길 원하는 어머니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강산애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 마져도 포용하려 하였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하여 강산애는 원망, 미움, 그리움, 포용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강산애는 어머니에 대하여 원망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그리움에서 포용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u>아버지와의 관계 표현</u>

강산애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 신뢰, 증오,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강산애는 아버지의 반복적인 거짓말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강산애의 존재를 부정한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없어졌으며, 원망감이 형성되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옆에 오면 소름이 끼칠 정도의 과도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u>부모에 대한 친밀감</u>

강산애는 부모에 대하여 친밀감이 없다. 아버지는 재혼한 가정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불일치 때문에 싫고, 서운한 대상이며, 어머니에 대하여는 친밀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

저는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 없는데요. 아버지는 싫고 어머니는 가까이 하고 싶으나 내가 가까이 가면 멀리 도망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까이 가서도 안되고 그냥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 항상 손 뻗으면 다들 도망가셨으니까요. 근데 가까이 두고 싶다면 암만해도 엄마. 근데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

분노경험

강산애는 조모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폭행을 경험했으며[75], 그로 인한 성격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유년기 때는 본인의 감정을 억압하였다. 나이 어림으로 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체벌과 언어적 학대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참아야만 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였다. 20 세 이후에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고집이 세지고, 드세졌다.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폭음을 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결혼 후 출산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의 분을 쏟았으며, 자녀들은 자연스레 분노를 해소하는 대상이 되었다.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학대의 경험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재현하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였다.

화가 났던 것은 할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때. 6 살이면 6 살답게, 7 살이면 7 살답게 행동할 텐데, 그걸 모르고 할머니가 계속 저를 되게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때리는 대로 다 맞았는데, 20 살지나면서 좀 드러나는게 뭐냐면, 드세지더라구요 제가. 고집이 세지는거. 어렸을 때는 한쪽 구석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때리면 때리는 데로 다 했는데, 20 살 넘으면서 터지고, 제가 애를 키우면서 들어나는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욕으로 나오더라구요.

분리 경험

[75] 목회자가 과거의 아동 학대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한국에는 없다.

강산애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6세 이후 분리 된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어색함과 불편함이다. 심지어 자신의 출산을 앞두고 출산을 챙겨 주시려는 친모의 호의도 불편할 정도이다. 아버지가 조모 집에 자신을 두고 간 분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무감각해 지게 되었다. 자신이 버림 받은 존재임을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공기가 있지만 느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자신을 경험한 것이다.

그게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어요. 6살 때 이후로는 항상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최초의 기억 그것 밖에 없어요.

거절경험

강산애는 항상 거절감을 경험하고 살았다. 삼촌과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눈칫밥을 먹고, 학원비를 아버지에게 요구하였을 때 거절당했으며, 초등학교 다닐 때 준비물을 요구하여도 거절 당했으며, 친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을 친가 식구들은 강산애에게 표출한 것이다.

위협과 협박의 경험

강산애는 삼촌들로부터 '할머니 아니었으면, 너는 고아원에 보내졌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장하였다. 삼촌들을 암묵적인 언어적 위협이 가해진 것이다. 또한 아버지로 부터 언어적 위협과 협박은 강산애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 받은 성적인 표현들이다. '누굴 꼬실려고 저러고 있나'라는 아버지의 표현에 적지 않을 상처를 받았으며, 강산애가 가난하기 때문에 친모가 강산애를 버렸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다. 심지어 강산애가

아버지에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이복여동생도 강산애 처럼 방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부모 경험이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

강산애는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 안에 잠재된 나쁜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욱하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매몰 차고, 분노를 심하게 표출하며, 애정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다.

> *그게 우리 엄마. 엄마가 정이 없다고 잔정이 없데요. 제가 그거를 저도 잔정이 없대요. 어떤 때는 되게 매몰찬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안 살았는데도, 남아 있네. 같이 안 살았는데도 왜 있지 했더니, 유전자 자체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제게 하신 대로 제가 답습이 아니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재 부모와의 관계

강산애가 경험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외면하고 싶은 존재이다. 어머니하고는 조금 상반된다.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주고 받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다가서면 어머니께서 도망가실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호전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녀와의 분리 경험에 대한 반응

강산애는 자녀들과 분리 될 때 불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정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어린 시절 받은 학대의 경험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한다. 강산애에게는 예기 불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아이들과 잘 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u>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u>

강산애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 처럼 자라지 않기를 소망한다.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북 받고 자라기를 원하고,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이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 *저 처럼만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안 걸렸으면 좋겠구요. 갈길 몰라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u>신앙 계기</u>

강산애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2007 년 경으로 보인다. 강산애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산애가 교회를 떠날려고 했을 때 강산애를 붙잡아준 어느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이다. 어머니로부터의 버림 받은 상처를 강산애는 신앙 안에서 만난 권사님을 통해 회복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경험은 자아가 애착 대상인 양육자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강산애의 경우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부재를 신앙 안에서 만난 권사님을 통해 채웠던 것이다. 강산애는 육적 양육자인 어머니가 제공하는 따뜻함, 자신의 이름 불러주기와 같은 애착 경험의 부재를 신앙 양육자인 권사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험을 목회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름 불러주기, 따듯한 손 내밀기와 같은 것이 처음 교회를 올라오는 성도들과의

애착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76]이라는 소리를 통해 자신이 사랑 받는 자이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애착 대상을 통해 유아가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고, 자신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 *제가 이 교회를 떠날려고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어느 분에게서 전화가 온 거에요. 그 당시 활동도 안 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마음을 주시는데 붙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에요.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는데, 모자실에서 딱 한번 봤는데 제가 그 때 제 이름을 밝혔나 봐요. 수소문해서 찾아내신거에요? 그 때 제가교회를 정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

강산애는 하나님을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계시긴 계신 가보다, 왔다 갔다 하는 분,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장벽이 있음, 내 중심에 두고 싶은 존재로 표현하였다.

>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있나? 없나? 체험, 계시긴 계신 갑다. 왔다 갔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장벽이 있어요. 요근래 들어서는 내 중심에 두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에 대한 원인 분석

강산애는 하나님에 대하여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강산애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76]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7).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럼 없이 '망할 놈의 하나님'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강산애는 자신을 양육한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체험을 방해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불안전 애착이 하나님 표상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 *엄마 아버지에 대한 잔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듣거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어떤 분이라는 정의는 내려지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내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분들이 잔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분두 이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에요. 근데 설교나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 기억속의 엄마 아빠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합체를 못시키는 거에요. …….육적인 부모의 상이 영적인 하나님 상에 오버렙되어 있구요 육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체험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체험이 왜곡 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친밀 경험

강산애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친밀의 경험은 2008 년 둘째를 출산 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다. 둘째의 심장에 천공이 생겼을 때 기도 응답의 체험을 했다. 천공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둘째가 병원에 가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다.

하나님 존재 부정과 거부감 경험 및 원인 분석

강산애는 자신의 셋째가 병원으로부터 간질 가능성의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욕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을 경험했다. 셋째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있다.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강산애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 이는 부모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는 것이고, 부모의 부재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산애는 스스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신을 조성한다.

>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했어요.*

<u>하나님에 대한 표상</u>

강산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무서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의 표상이다.

> *무서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u>하나님 표상 형성의 원인 경험과 배경</u>

강산애는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다.

> *무서운 이미지. 그냥 무서웠어요. 주일 안나오면 혼낼 것 같고, 내가 십일조 안내면 혼낼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무서웠어요. 구약을 읽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u>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 분석</u>

강산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조모, 고모, 시부, 친모, 친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무조건 때리는 양육자의 경험을 통해 벌 주시는 하나님을 표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 경험을 통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다.

어렸을 때 할머니 고모.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고, 시집와서는 시아버지. 시아버지께서 정말 가부장적이시거든요. 신발 제대로 안 벗어 놓으면 다섯 식구 다 손들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 할머니. 이분들이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었기 때문에 저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내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들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짐덩어리.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도 있는 듯 없는 듯한 나의 존재처럼 하나님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 엄마 아빠 내가 가까이 갈려면 도망가고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가까이 오시고 항상 제가 가까이 갈려고 하면 두 분다 끊어버리셨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강산애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기 힘든 막연한 존재이다.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는 포장된 하나님에 대하여는 설명이 가능하나 진심으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설명하기 힘들어한다. 강산애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에 찬 명료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험으로 인한 잔상이 하나님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이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해요. 지금은 입이 딱 다무러지고 얘기 못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부모의 잔상이 하나님을 가로 막아요. 마치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게 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전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잔상의 하나님이였던거 같아요. 가면 무조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내가 실제로 터득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내가 체험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느꼈던 하나님은 아니였어요. 포장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지요. 듣고 만들어낸 하나님, 설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이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막 들이 밀기에는 내가 안에서 또 흔들리는 거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변화

` 강산애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봐 주고 안아주는 부모로서의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손 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거짓이 아니고 허공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였다.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진짜로 내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준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게 안되요.

<u>자신의 신앙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에 대한 기대</u>

강산애는 비로 자신의 부모들에게는 버림 받고 돌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따뜻한 아버지이기를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너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살았는가 보다. 네 육적인 부모는 이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랬어. 안개 속에 더듬고 가는 것 같아요. 따뜻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손을 잡아 주는 하나님.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강산애의 양육자와의 관계로 인한 하나님 이미지를 요약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산애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볼 때 자신에 대하여 학대한 주 양육자인 아버지와 다른 양육자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자신이 정작 그리워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그리움과 미움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양육자와 형성한 강산애의 애착은 불안정 혼돈 애착을 형성하였고, 성인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불안은 경험하고 있었다.

강산애는 자신을 양육한 부모의 주된 이미지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아버지와 그리운 어머니이다. 이런 이미지로 인해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체험을 방해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하나님 표상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강산애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 이는 부모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는 것이고, 부모의 부재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산애는 스스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신을 조성했다. 강산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포장된 하나님이다. 자신이 경험한 부모의 이미자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포장지로 감쌌던 것이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산애가 회복하고 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자신을 바라봐 주고 안아주는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손 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미지이다. 강산애는 커크패트릭이 보상가설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 할지도, 하나님과 형성된 애착 관계를 통해 양육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심리적 안정감, 애정가 사랑을 채우길 소망하는 것이다.

2. 김노을

김노을의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성장환경

김노을은 부산에서 성장하였으며, 물질적으론 풍요로웠다. 성장기에 조부와 친부의 잦은 싸움이 있었으며, 어머니는 조부와 친부의 갈등의 희생양이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조부의 폭력성과 그 아래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어머니를 보면서 성장하였다. 김노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

김노을은 어머니에 대하여 동생으로 인해 거절감의 기억을 서운하게 가지고 있다. 어린 동생과 싸워 동생을 울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울린 자신을 향해 손지검을 하였을 때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부와 친모와의 갈등이 심해진 후로 어머니는 넉두리와 우울을 가슴 깊이 간직하셨고, 김노을은 우울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 표현

김노을은 어머니에 대하여 헌신, 봉사, 희생, 무뚝뚝함, 표현 없음이란 단어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기계적이고 생동감이 없으며 의무적인데 대한 의구심에 나온 반응이다.

> *헌신, 봉사, 희생, 무뚝뚝함, 표현 없음. 항상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없으셨어요. 감정이 없는 어머니를 보고 기계적이다. 생동감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표현

김노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무뚝뚝함, 무관심, 무기력함, 불쌍함, 나약함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조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감정 대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감정 없음과 무기력한 삶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부와의 관계에서 조부는 강압적이고, 황소고집을 가지며, 의사소통의 단절과 비상적인 감정, 세대차이, 소통의 부재, 편엽한 사고를 보였다.

> *무뚝뚝함, 무관심, 무기력함, 불쌍함, 나약함. 항상 무기력한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았고,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와의 관계에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진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친밀감

김노을은 어머니의 격려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어머니와 더 친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에 대하여는 대화가 없었고,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엄마가 더 친밀하고요. 아버지랑 비교했을 때, 감정 표현을 두 분 다 안 하셨지만, 아버지 보다는 더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헌신적으로 보살펴 준 기억은 엄마가 더 많으니까요.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없었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다 할 수 있죠.

분노경험

김노을은 친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화가 났고, 때를 쓰고 울며 고함을 지르는 분노를 표출하였다.

분리경험

김노을은 아버지와 대화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분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말이 없었던 아버지와의 대화 단절은 자신과 아버지가 밀착되어 있고, 연관된 존재가 아니라 별개적 존재라는 심적 분리를 경험한 것이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분리 경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상하였을 때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 역시 자신과 연관된 존재가 아니라 별개적 존재로 느낀 것이다.

부모 경험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김노을은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의 태도에서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배웠지만, 어머니의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다. 친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으며, 중학년 때 친부께서 별세하신 후로는 조부의 영향을 받았다.

조부는 김노을에게 성공과 출세를 강조하였으며, 그로 인해 김노을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가치를 주입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었다.

부모 행동에 대한 이해

김노을은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의 태도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을 인지하였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출세를 바랐던 조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조부의 눈에 아버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식이었다. 그로인한 조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조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결국 조부는 친부에 대한 기대감를 김노을에게 전가하였다. 김노을은 조부의 기대감과 주입된 가치관으로 인해 힘들어했다.

심리적 외상

김노을은 친부의 사망 후 어머니에 대한 조부의 의심으로 어머니가 우울한 삶을 살고, 그런 어머니의 우울한 모습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우울을 전이 시켰으며, 감정적으로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함을 힘들어 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우울하다고 하였다.

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김노을에게 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조부와 아버지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으며, 조부는 친부와의 갈등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키기도 하였다. 가족들의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현재 부모와의 관계

김노을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자신의 내면에 내제된 분노, 불안, 우울감이 있다는 인지하였다. 이런 자신의 내면을 신앙의 힘으로 회복하려 시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역기능 가정에서 아동기를 보내면서 누적된 분노 불안 우울을 성인기에 깨닫게 되었고, 신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고 바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면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렵고 우울한 것을 바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u>자녀와의 분리 경험에 대한 반응</u>

김노을은 조부에 대한 확장된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부에 대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힘든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김노을은 자녀와의 분리시 그리움에 대하여 편지, 선물, 말로 충분히 표현 할 것을 추구한다.

<u>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u>

김노을은 자신의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건강,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 누구가의 가치가 주입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

<u>아동기 경험의 교훈</u>

김노을은 아동기의 경험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 부모가 자녀와 시선을 맞추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불안정했던 애착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정서적인 불안이 있고,

우울함과 분노가 있으며,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며,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함에 안타까워한다.

신앙 배경

김노을에겐 특별한 신앙적 배경이 없으며, 자신이 회심하고 난 후 조부도 친모도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부는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명예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주입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김노을에게 형성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느낌(아동기)

김노을은 하나님이 돌 같은 존재로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하나님 어릴 때 안 믿었으니깐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신은 무뚝뚝하고 돌 같은 존재일 것이다. 때로는 강압적이고.*

신앙 계기

김노을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3 년 때 자신이 안고 있는 분노, 두려운,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자신의 문제를 신앙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진 것이다.

> *군대 졸업하고 대학교 3 학년 때. 분노 두려움 우울함 때 문에 많이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하나님 믿으면서 치유되어야겠구나. 이모,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여서 많이 끌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

김노을은 하나님을 전능자, 위로자, 무뚝뚝하심, 표현이 많이 없음, 함께 하심, 도와주심, 치료함으로 표현한다.

전능자, 위로자, 무뚝뚝하심, 표현이 많이 없으심. 함께하심, 도와주심. 치료하심. 실제로 느꼈던 것은 무뚝뚝함이 있었고, 반응이 없으신 분, 쉽게 쉽게 반응이 없으신분, 듣고만 계시는 분.

<u>예수님과의 관계 표현</u>

김노을은 예수님에 대하여 치료자, 무뚝뚝하심, 전능자, 표현이 없음, 조금은 강압적으로 표현한다.

치료자, 무뚝뚝함, 전능자, 표현이 없으심, 조금은 강압적임.

<u>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에 대한 원인 분석</u>

김노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한 주된 원인 조부와 친모와의 관계적인 영향이다. 어머니를 통해 표현이 없고, 헌신적이며, 도와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조부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강압적인 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인 영향은 김노을이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형성된 것에 대한 동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 김노을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제왕적 모습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이 많이 표현 된 것 같아요. 엄마의 표현 없음, 할아버지의 강압적임. 도와주시심. 표현은 없지만 헌신적으로 도와 주시는 어머니. 문) 강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부장제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루는 아버지의 제왕적인 그런 강압적인 이미지인가요? 예 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예

<u>하나님 친밀 경험</u>

김노을은 하나님관의 친밀 경험이 거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느껴질 때 그의 마음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며, 평소에는 없다고 한다. 자신의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자의 표현하지 않음, 말 없음, 대화 없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난다.

> *잘 없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느껴질 때 사랑한다라고 마음 속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평소에 삶 속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없는 것 같아요.*

<u>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u>

김노을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 할 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될 때,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이다. 무엇보다 아내를 통해 결핍된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애정의 표현을 받을 때 아내를 통해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고 하였다. 김노을에게 있어서 아내는 지금까지 그가 친모와 조부를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왜곡된 표상을 회복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 *제 마음이 평안 할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 라고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신실이를 통해서 표현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랑표현, 감사표현, 애정표현. 제가 받지 못한 스킨쉽이나,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눈 빛으로 표현 받는 것, 제가 엄마에게 받지 못한 것을 아내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결핍을 채워주시는 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표현하시는 하나님.*

<u>하나님 부인과 불신의 경험</u>

김노을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표상

김노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전능하신 분, 무뚝뚝하심, 사랑하심, 바위같이 우직하심, 표현이 없음, 조금은 강압적임, 우락 부락한 근육맨 같은 것이다.

> *전능하신 분, 무뚝뚝하심, 사랑하심. 바위 같으신 하나님, 우직하심. 우직한 바위 같은 분, 표현이 없으심, 조금은 강압적인 분,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영웅 처럼 우락 부락한 근육맨.*

하나님 표상 형성의 원인 경험과 배경

김노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중 1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조부의 영향이며,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신 어머니의 영향이다.

> *할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엄마의 이미지도 있죠. 헌신적으로 도와주심, 사랑하심.*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 분석

김노을은 조부의 무뚝뚝하심과 강압적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을 표상할 때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하나님 이미지로 표상한다.

> *엄마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림이 좀더 큰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하나님 이미지, 어머니를 통해서 헌신과 사랑의 이미지.*

죽음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

김노을은 죽음 이후 하나님과 이뤄질 관계에 대하여서도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무뚝뚝하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김노을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잘 도와주시며, 기쁨과 감사를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가 느끼는 진정한 하나님은 무뚝뚝하고 전능하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항상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진짜 마음으로는 전능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무뚝하지만,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변화

김노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 본다. 그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 경험이 자신 성장기에 주된 양육자였던 조부와 친모와 다른 하나님을 표상하게 하는 것이다. 강압적이고 무뚝뚝한 하나님 표상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표현을 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표상으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있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강압적인 무뚝뚝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답)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표현을 잘하시고 매 순간 표현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에 대한 기대

김노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임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 *나약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약한 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김노을의 양육자와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노을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른 나이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다. 아버지의 양육자리를 조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조부는 김노을에게 있어서 새로운 애착대체인물이 되었다. 김노을이 양육자와의 애착은 친부와의 양육관계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다. 김노을은 친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의 단절과 심리적 분리를 경험하였다. 친부는 김노을에게 안전기저로서의 역할이 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와의 애착은 안정애착이다. 김노을에게 어머니는 심리적 안전지지였다. 어머니와 형성된 안정애착 경험은 김노을이 성장한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 처럼 봉사하고 타인을 돌보는 기재가 되었다.

김노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돌 이미지다.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김노을이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부재 이후 조부와 형성된 애착 관계가 토대가 되었다. 조부는 김노을에게 있어서 강압적이고 무뚝뚝한 분이었다. 양육자와 친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김노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김노을의 경우 양육자를 통한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노을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김노을이 결혼하고 만난 아내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사랑 표현이 많고 애교가 많은 아내와의 관계 경험은 김노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애착의 경험이었다. 아내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강압적이고 무뚝뚝한 돌의 이미지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애정을 표현하는 연인 하나님 이미지로 수정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3. 박우리

박우리의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과 하나님 표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u>성장환경</u>

박우리는 10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으며, 박우리의 눈에 양육자인 아버지는 자녀들이 학업에 집착하고, 교육에 관하여 엄하였다. 배움이 없어서 공장 근로자였던 자신과는 다른 삶을 자식들이 살기를 원해서 자식들, 특히 아들의 진로에 지극정성이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이다 보니 당연히 딸들은 뒷전이었다. 서울로 전학을 와서도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큰 언니는 장녀라는 이유 만으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희생을 요구하였다. 박우리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편애와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있다.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명문대학을 다니는 과외 선생님을 가정에 들여서 공부를 시킬 정도로 아들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한 반면 딸들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기를 원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딸을 더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런 아버지의 자녀 교육의 방침으로 인해 박우리는 아버지에 대하여 쌓인 것이 많았다. 성장기에 박우리는 고등학교 진학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때 박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포용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핀잔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부지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했고, 너무 교육열이 강하다 보니까 자격증 따오는 자식은 사랑하고 이뻐하셨어요.

<u>부모님과의 관계</u>

박우리는 언니로부터 물려 받고, 여동생에게 새것을 양보하는 가족 구조에서 성장하였다. 박우리의 기억에 10살 무렵 친척이 가지고 온 새 옷을 두 살 아래 여동생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쓴 기억이 있다. 훗 날 어머니가 그 옷으로 땡땡이 앞치마를 만들었을 때, 그것만 봐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다. 박우리의 기억 속의 부모님은 무조건 여동생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어머니와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 표현

박우리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가고 싶어했다. 어머니는 엿 장수에게서 갱엿을 한 움큼 사서 자신의 입에 넣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매몰차게 했던 어머니에 대해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어머니로 기억했다. 사춘기 때는 경상도 사투리로 '지랄맞네, 뭐하네 가시나…'라고 말하시면서 등 짝을 사정없이 때렸던 무서운 어머니, 그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못한 자신의 기억이 있었다. 라면 봉지하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방석을 만드실 정도로 부지런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시고 마음이 여리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표현

박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서운 아버지, 엄하신 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 다가가기 어려운 아버지, 말이 없고 편견이 강한 아버지, 장녀는 장녀라서 차녀는 귀염성이 있어서 아들은 아들이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이뻐하셨지만 유독 자신에 대하여는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쁨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과 차별하시는 아버지,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하며, 자신이 성장한 가정이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정으로 인식한다.

<u>부모에 대한 친밀감</u>

박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친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상을 진학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기대치에 못미치고 인문계로 진학한 자신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고, 무섭고 서먹서먹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아버지로 기억한다.

<u>분노경험</u>

박우리는 어머니가 선물로 들어온 새 옷을 때 쓰고 우는 아래 동생에게 주고 자신에게 주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분노를 경험하고, 사춘기 때 오빠가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으로 인해 수치감을 느꼈다. 오빠와 아버지의 지시적인 행동으로 화를 내고 그 분 풀이를 여동생에 하였다.

<u>위협과 협박의 경험</u>

박우리는 부모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은 경험은 없지만, 화가 나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한 채벌과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옷을 안 입히고 집 밖으로 내쫓은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다.

<u>부모 경험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u>

부모의 관계 경험이 박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열등감과 부정적 사고, 자기애의 결핍, 자녀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다.

좋은 거는 없고요. 거의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열등감, 부정적인 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애가 없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지 사랑을 베풀줄 안다고 하는데, 저 역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u>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u>

박우리는 결혼 후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니깐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구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던 것은 아니구나. 엄마가 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고 엄마는 항상 나에게 따뜻하게 해줄려고 그랬는데 엄마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구나.

<u>신앙 계기</u>

박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고 1 때 친구 따라 교회 수양회 참석을 통해서이다. 사실 수양회라기 보다는 기도원 집회를 참석한 것이다. 기도원의 기도시간에 조명을 소등하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저러나'하는 생각과 함께 무서움을 느꼈다고 했다.

<u>하나님과의 관계 표현</u>

박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 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 불순종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자신에게 미움이 많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 진다고 했다.

<u>하나님 친밀 경험</u>

박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친밀감을 경험했다.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날 밤이나 다음날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요.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또 주로 찬양 할 때 그 주의 제가 흥얼거리고 많이 머리 속에 떠올리고 교회오면 바로 듣게 되요.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 주에 생각했던 것들, 떠올렸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박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녀를 입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최근에는 두 아이 입양하고 나서 이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가운데 계셔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의 경험

박우리는 자녀가 생기기 않는 불임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을 경험하였다.

거절은 당했죠. 자녀의 문제. 다른 사람이 쉽게 쉽게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많았어요. 아빠가 6 개월을 다녔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 너무 너무 외로웠어요. 사면 초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질투가 심했어요. 나중에는 감사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

박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뜨거운 불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차가운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또한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같은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엄마 같은 하나님. 가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불 같은 이미지. 뜨거운 불. 차가운 물 같은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표상 형성의 원인 경험과 배경

박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의 주된 원인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와의 경험이다. 잘하는 자식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잘 못하는 자식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극단적 편애를 가진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다.

아버지는 극과 극이었어요. 잘하는 자식은 이뻐해 주고 못하는 자식은 처다 보지도 않고.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 분석

박우리는 잘못하면 화를 내고 진노하는 아버지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표상하게 되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항상 엄마는 제가 엄마한테 안부전화 안하고 제가 안가서 그런거지 하나님도 여전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저의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불 처럼 물 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잘못하면 금방 진노하고 화를 내고.

죽음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

박우리는 죽음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가가고 싶지만 행동이 뒤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계요? 마음은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안가지는 거에요. 마음은 어머 아버지 하고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가지는 거에요. 여전히 하나님도 마음은 가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행동이 잘 안되는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박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신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온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이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틀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정말 표현이 안 되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것 저것 생각할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변화

박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의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길 소망하고 있다.

> *그때는 기대를 해보는 게 지금보다 더 낳아져야겠죠.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이미지로 변화가 되어야겠지요*

박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불안정-회피 애착이다. 박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접촉을 거부하고 서먹 서먹하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였다. 형제간에 차별하는 아버지의 양육으로 인해 박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과 부정적 사고, 자기애의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친부가 자신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아버지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신에게 진노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겼다. 친부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박우리는 비록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안정, 애정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박우리 역시 보상가설에 부합한 사람이다.

박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과 같은 이미지로 형성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상은 자신의 친부에 대한 이미지와 동일하다. 박우리가 경험한 친부는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분이었다. 잘하는 자식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잘 못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극단적 편애를 가진 친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에도 그대로 반영 된 것이다. 박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따뜻하게 안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하나님 이미지는 박우리가 경험한 친모의 이미지와 부합하다. 박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더 친밀한 이미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였다.

Chapter Ⅳ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Futher Suggestions)

나는 성인 3 명을 심층 면담함으로 그들이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하나님 표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하나님을 표상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든다. 아버지와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상할 때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들어나는 것은 하나님 표상이 종교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것이고,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하나님 표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된 이미지는 명실공히 아버지 이미지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발생하는 주된 문제는 왜곡의 문제이다. 또한 1 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미지를 논하였 때 군주적 하나님 모델은 권위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남성적 하나님 이미지는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된 아버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가 이미 형성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애착 이론을 활용함으로 성도에게 그러한 하나님 표상이 형성된 연유를 해석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 등장한 3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형성한 이미지와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연관하여 이해하였을 때 비로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은 거리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데 어려움, 찬양 시간과 설교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하나님과의

괴리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 이미지, 연인 이미지, 양육의 이미지들을 발견했을 때 눌림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고, 답답함에서 시원함을 연구 참여자들은 누리게 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3 명의 참여자들만 그들의 애착 관계와 하나님 표상을 연관하여 해석하였지만,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양육자와의 애착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 관계를 해석하여 줄 수 있다면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 자신의 내면 안에서 경험하였던 답답함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표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하나님 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서에 기록된 상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상징을 만든다는 것이다. 언어를 통한 상징체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특징이다. 성서 속에서도 다양한 상징체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 성서에 등장하는 상징체계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성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요하다.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힘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또한 성서를 바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종교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교가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가 미치는 사회적, 종교적, 정신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도 또한 도외시 할 수 없는 점이다. 종교가 가진 상징은 인간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성을 뛰어 넘어

특수한 어떤 의미를 담지하게 된다.[77] 인간이 신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논리가 바로 상징이다. 언어가 담고 있는 그것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고, 언어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하자 하는 의도가 언어 상징에 포함 되어있다. 가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의 상징성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징 그 차제는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다. 신을 나타내는 이미지 중 하나인 아버지가 신은 아니다. 신의 성품을 나타내고자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 상징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의 종교 교육자 파울 슈미트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아버지로 국한하기 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육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 보다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고 보다 분명하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한 한다.[78] 또한 미국장로교(PCUSA)의 간추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양육하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어머니와, 집에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기 위해 다려가는 아버지’로 묘사한다.[79] 성서 속의 상징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성서를 읽는 독자에 따라 다양한게 표현되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의 전통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

[77]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3.

[78] Ibid., 114-15.

[79] Migliore, 110.

이미지를 하나로 절대화 하는 틀에서 벗어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보다 적합하게 이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기위한 성서적, 신학적 노력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주된 이미지인 신인동형론적 표현들에 해하여 목회자는 이런 표현이 담지하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 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하면서 나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나의 두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1 학년인 딸과 초등학교 5 학년인 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식사를 하다 두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애들아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나의 질문에 초등학교 5 학년 아들은 눈을 둥그렇게 크게 뜨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아빠, 하나님은 남자 아니에요?" 초등학교 5 학년 남자 아들은 하나님을 남자로 인지하고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자로 표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인동형론적으로 가르치고 이해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하나님의 성(性)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만약 남성이다고 생각하면 젊은 남성일까? 아니면 늙은 남성일까? 여성이다면 이쁘고 섹시한 여성일까? 아니면 추하고 뚱뚱한 여성일까? 다음으로 인종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님은 백인, 황인, 흑인 중 어느 인종의 형상일까? 또한 성적성향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님은 동성애와 이성애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상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비정상인의 모습일까? 결론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하나님 이해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 표상이 인간의 모습에 근거된 표현이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셋째, 목회 일선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 공부, 기도회 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아버지로 국한하지 말고, 성서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 어머니 하나님, 연인 하나님, 친구 하나님, 지혜 하나님, 동반자 하나님 등과 같은 영 모델의 하나님이 가르쳐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군주적 가부장적 이미지와 우상적 모델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넷째, 양육자와의 깊은 갈등이나 상처를 안고 성장한 성도들을 상담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 I: 연구 참여 동의서

면접 동의서

본인은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애착관계 경험을 통한 하나님 표상 회복에 관한 목회적용 연구 –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의 애착경험과 하나님 표상 회복을 위한 목회적용'라는 제목으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신자로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경험된 애착과 하나님 표상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하나님 표상 회복을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될 결과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신자들이 올바른 하나님 표상을 회복하는데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논문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여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무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 자료는 반드시 논문의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과 내담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 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15.

상담자 최종배 (서명)

내담자 (서명)

부록Ⅱ: 부호화 기록지

성인의 애착 경험이 하나님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강산애	김노을	박우리
1. 성장환경	부모의 잦은 싸움 여동생의 입양 영육자의 변동(할머니) 조부모의 애정 결핍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별거 어머니의 가출 양육자로 부터의 애정 결핍 할머니의 학대 고모의 학대 방치 여동생의 입양 짐덩어리(49 쪽)	부산 물질적으로 풍요 조부와 친분의 싸움이 잦음 희생양 - 어머니 어머니 품 - 행복함 가부장적 가정 - 할아버지의 폭력성 - 어머니 순종적	10 살 때 - 서울 이사 아버지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집착 -교육에 관해서 엄함 -장녀의 희생을 요구 -아들에 대한 편애 -오빠를 편애한 부모에 대한 상처 -남아선호 사상 -자격증 따는 자녀에 대한 사랑 -핀잔 : 여상 진학 실패 -위로와 포용은 없음 -수근 수근함
2.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잦은 가출 아버지에 대한 전적 신뢰 -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신뢰함 약속의 불이행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기억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거절감 - 동생 때문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과 소외감 - 동생 때문 조부와 어머니와의 갈등 - 어머니의 넉두리 -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 - 여동생에게 양보를 강요함 아버지 -일로 인해 바쁨
3. 모관계	원수 원망 증오 사랑 포용 원수 원망 -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원인 제공 어머니에 대한 조부모의 부정적 평가 여동생 입양에 대한 원망 버림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감정 변화 - 출산 후 :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대한 거부감 어머니에 대한 무조건 적인포용 재회 후 어머니와의 갈등과 다툼 - 애증의 대상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 그리움과 미움 어머니의 요구 사항에 대한 거절하지 못함 : 포용 원망 → 미움 → 그리움 → 포용	헌신 봉사 희생 무뚝뚝함 표현없음 기계적, 생동감 없음 - 감정의 표현 없음 -제한된 감정 표현 -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	귀찮게 여기는 어머니, 무서운 엄마, 헌신 희생하시는 엄마, 마음이 여리신 엄마, - 경동시작의 사건 - 어머니에게 요구하지 못함 - 요구를 거절하는 엄마 - 때리는 엄마 : 손이 매움

4. 부관계	사랑 신뢰 증오 미움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 형성 - 반복적인 거짓말, 불시 아버지의 재혼 - 내담자의 존재에 대한 부정 아버지의 무정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 교회에 나온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혐오감 -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음 친밀감 → 거짓말 → 불신→ 혐오감형성	무뚝뚝함, 무관심, 무기력함, 나약함 - 조부와 아버지의 감정대립 - 감정 표현 없음 - 무기력함 할아버지와의 관계 -강압적 , 황소 고집 -의사소통의 단절 -비상식적인 감정 -세대차이 - 소통의 부재 - 편엽한 사고	무서운 아버지, 엄하신 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 다가가기 어려움, 말이 없음. 편견이 강함, 무서운 아버지. 실수에 용납을 못하심 편견 - 외모적으로 못생김 형제들과의 차별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부장적 가정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5. 부모에 대한 친밀감	친밀감 없음 부 : 싫음 - 서운함. : 새가족과 대상자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 모 :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있음 반응) 거리감 두기	어머니와의 친밀 관계 - 친부보다 더 표현함 -격려 -헌신적인 보살 핌 아버지와의 관계 - 대화 없음 - 마음의 문을 닫음	어머니에 대한 친밀 아버지 - 불평 불만이 많음 - 진로에 대한 불만 - 피아노에 대한 아수움 -무섭고 서먹서먹하고 다가가기 어려움
6. 분노 경험	조모의 신체적 학대와 폭행 성격의 변화 1) 유년기 : 감정 억압 - 학대에 대한 대응 못함 - 참음 - 감정 표출 못함 2) 20 세 이후 : 감정 폭발 - 드세짐 고집세짐 - 감정 조절의 어려움 - 분노 조절의 어려움 - 폭음(술마심) - 감정의 폭발 3) 출산 후 - 대상 : 어린 자녀들 - 분노의 폭발 - 폭언, 욕함 - 괴로움(학대 경험의 재현) - 후회 - 폭력 행동	엄마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 때를 씀 - 울고 고함 지름	동생에게 옷 양보한 사건 오빠의 행동 -사춘기때 머리와 엉덩이를 때림 - 수치감 유발 - 지시적 - 무서움 여동생에 대한 분풀이 - 여동생과 싸움 - 피아노 침
7. 분리경험	어머니와의 분리 : 6 세 이후 영향 : 어색함, 불편함 아버지와의 분리 : 조모 집에 맡김	아버지와의 분리 경험 - 심리적인 분리 - 대화의 단절	없음
8 거절감	항상 거절을 경험하고 삶 - 삼촌과 할머니 밑에서 눈치밥 - 아버지의 거절 : 학원비 없다함 - 초등학교 준비물 요구 거절 - 육성 회비 거절 - 친가의 경제적 부유함에도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 -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을 친가 식구들이 대상자에게 표출	어머니의 무관심과 거절 - 동생 아버지의 거절 -뺨을 맞음	많이 당함 어머니 -필요한 것들의 요구에 대해 거절함 - 피아노 가방 거절 -옷도 사주지 않음

9. 위협과 협박	삼촌들의 위협 - 할머니 아니였으면 고아원에 보내졌을 것 아버지의 위협 - 성적인 반응 - 누굴 꼬실려고 그러느냐? - 무서움 경험 - 자신의 학대 경험을 이복동생들 에게도 그대로 하겠다고 함 - 비난의 표현 : 어머니와의 관계 두절을 자신의 가난이라고 함	없음	없음 아버지 - 화가 나면 채벌함 - 옷 벗기고 집밖으로 쫓아냄 - 수치심 유발
10. 부모 경험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잠재된 나쁜 성향 - 욱함 - 감정 조절의 어려움 - 매몰 참 - 심한 분노 표출 - 애정이 없음 - 삶의 의욕 상실(아 살기 싫다)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의 태도 -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 - 감정 표현이 서툼 아버지 - 기억이 없음 할아버지 -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강조 - 가치 주입 - 실패에 대한 불안감 형성	부정적 영향 - 열등감 - 부정적 사고 - 자기애의 결핍 - 자녀에 대한 부정적 표현
11. 부모행동에 대한 이해	친 조부의 부정적 영향 - 아버지의 잦은 이직 친 외조부의 부정적 영향 - 외조모를 버림 - 친모 또한 자식들을 쉽게 버림 원가족적 문제가 대물림 됨	어머니의 사랑 표현 - 헌신과 섬김의 태도 아버지 - 할아버지의 기대 못 미침 - 심리적으로 취약함 - 할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자식이 많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됨 아버지의 교육관이 잘못 됨을 스스로 알게 됨 아버지에 신뢰가 떨어짐
12. 부모와 친밀 경험	삼촌 -용돈을 잘 챙겨 줌	이모, 이모부 할아버지 - 아버지의 역할 대신	없음
13. 상실경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질투심	아버지의 죽음 -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함 - 아버지와의 친밀감의 부재	없음
14. 심리적 외상	남편 - 음주와 폭행 - 핍박 :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 심리적 상처와 충격이 큼	어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의심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감의 전이 -감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함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 실망감
15. 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	관계 변화 없음 요구할 수 없음	조부와 친부의 지속적인 갈등 - 어머니에 대한 탓 함 - 문제의 원인을 어머니께 돌림 가족들의 계속된 갈등 상황 -변화 없음	결혼후 -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함 - 어머니의 성격 이해 -
16. 현재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의 다가섬에 대한 반응 - 거부함 - 같은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음 어머니 - 연락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내제된 분노 불안 우울감 인식 - 역기능적 가정의 성장이 원인 신앙을 통해 회복 시도 -감정의 관찰, 변화를위한 노력	아버지에 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함 -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함

	싫음 - 어머니는 거리둠 - 일년에 한 두 번 연락 주고 받음 -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싶은 욕구 아버지 : 외면하고 싶음 어머니 : 친밀하게 지내고 싶음		
17. 자녀와의 분리 경험에 대한 반응	불안감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함 -정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함 -자신의 어린 학대 경험을 자녀들에게 재현 -예기 불안 : 사고 유발에 대한 불안 -아이들과 노는 방법을 모름 부모님과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	조부에 대한 이해심 확장 -측은지심 형성 친모에 대한 이해심 - 어머니의 힘든 삶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분리 시 - 그리움 - 그리움에 대한 표현 - 편지 선물 말	걱정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전화 통화 하고 싶은 마음
18.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	자신 처럼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 사랑을 충족히 받은 자녀 -자기 표현과 주장이 있는 자녀	신체적 건강 건강한 자기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기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화목한가정 이루기 교회생활 잘하기
19. 아동기 경험의 교훈	부정적 양육태도를 배움 - 때림/ 학대, - 억누름 - 지시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시선 접촉(아이 컨택) 사랑 양육 화목한 가정 분위기 아동기의 불안정한 경험 - 정서적인 불안 - 우울함 - 분노 있음 - 불안정한 정서 상태 -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함,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함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음
20. 자녀가 부모를 통해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	부모에 대한 원망 증오 미움의 기억을 갖지 않기를 바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확신과 신뢰	부모와의 추억 공유 화목한 가정 버림 받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길 바람

하나님 표상에 대한 분석

	강산애	김노을	박우리
1. 가족 신앙 상황	할머니 -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조부와 친모 - 기독교 본인이 회심하고 난후 전도함 뜨거운 신앙은 없음. 할아버지 - 자기 주장 강함 - 고집이 셈 - 명예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	친정 - 불교

		주입 - 영향 : 두려운 마음의 형성	
2.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느낌(아동기)	하나님에 대한 좋고 나쁜 이해가 없음	무뚝뚝하고 돌 같은 존재 강압적	없음
3.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2007 년 경 부터	군대 제대 후 대학교 3 학년 -정서적인 문제 : 분노 두려움 우울 -대인관계의 어려움 -하나님을 통한 치유의 기대	고 1 때 수양회 참석 무서움의 경험
4.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체험 계시긴 계신 가보다 왔다 갔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장벽이 있음 내 중심에 두고 싶음	전능자, 위로자, 무뚝뚝하심, 표현이 많이 없으심, 함께하심, 도와주심, 치료하심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경험 - 무뚝뚝함 있음 - 반응이 없으신 분 - 듣고만 계심 - 강압적인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 - 불순종을 벌하시는 하나님
5. 예수님과의 관계 표현	거리가 상당히 멈 답답함 장애가 있음 안개가 가려져있는 느낌	치료자, 무뚝뚝함, 전능자, 표현이 없음, 조금은 강압적임	생각해 본 적이 없음
6.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의 원인 분석	하나님에 대한 양가 감정 -기도 응답 시 : 살아계심 인정 - 힘든 상황 : 하나님을 욕함 (망할 놈의 하나님) -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어려움 -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체험을 방해하고 있음 -하나님 체험이 왜곡 되고 있음	조부와 친모의 관계를 통한 인식 형성 어머니 - 표현 없음 - 헌신적 - 도와주심 조부 -강압적	없음
7. 예수님관의 관계 표현의 원인 분석	멀다 답답하다 장애가 있다 가려져 있다 - 예수님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	조부와 친모의 관계로 인한 영향	없음
8. 하나님 친밀 경험	2008 년 둘째 출산 후 - 심장 천공 생김 기도 응답 체험 : 천공이 막힘 - 로타바이러스 기도 응답 체험 : 치유 경험	잘 없음 성령으로 충만 할때 -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 말씀하심 평상시 -사랑의 감정 표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
9. 하나님 존재 부정과 거부감의 경험 원인 분석	셋째 경련 후 - 간질 가능성 진단 -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과 욕함 -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협박 불교로의 개종 선언 -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 형성 -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불안 형성 : 죄책감 - 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없음	목회자로부터 상처 불임에 대한 하나님 원망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감 -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 -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불신) - 부모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여김 - 부모의 부재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다라고 생각함.		
10.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경험	항상 솟구침	마음이 평안 할 때 많은 것을 주셨다 라고 생각 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 어려움을 통해 단련시키는 하나님 아내를 통해 결핍된 사랑이 표현될 때 -사랑 표현 -감사 표현 -애정 표현 -아내를 통해 표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 자녀 입양
11. 하나님 부인과 불신의 경험	셋째 아들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 세상적 가치와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는 불안감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과 거부감
12.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진 느낌의 경험	셋째 아들 경기와 간질 -내 것을 뺏어 가야 속이 시원하겠냐?	없음	자녀의 문제 - 불임
13. 현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무서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전능하신 분, 무뚝뚝하심, 사랑하심, 우직한 바위 같으신 하나님, 표현이 없음, 조금은 강압적임, 우락 부락한 근육맨 같은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 -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분 뜨거운 불 같은 이미지 차가운 물 같은 이미지
14. 하나님 이미지 형성의 원인 경험과 배경	무서움 -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 주일성수, 십일조 하지 않음	조부의 영향 친모의 이미지 - 헌신적으로 도와주심, 사랑하심	아버지 - 극과 극 - 잘하는 자식과 못하는 자식에 대한 극단적 편애
15.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 분석	할머니, 고모,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고모 - 무조건 때리는 존재 - 짐덩어리 취급 - 있는 듯 없는 듯한 취급 시아버지 : 가부장적 존재 어머니 아버지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조부 -무뚝뚝함 -강압적인 하나님 이미지 친모 -헌신과 사랑의 이미지	아버지 - 잘못하면 진노하고 화를 냄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 항상 그 자리에 있음
16. 죽음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	어렵고 답답한 관계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면 혼 낼 것 같다. -감정 표현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 - 편하게 대하거나 요구하지	하나님이 무뚝뚝하게 바라보시는 관계	다가가고 싶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음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 - 행동은 되지 않음

	못하는 관계 - 매우 불편한 관계		
17. 하나님에 대한 설명	막연한 존재 설명하지 못하는 존재 포장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 그러나 진심으로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듬 -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명료한 설명이 불가능 ∴ 부모의 경험으로 인한 잔상이 하나님을 가로 막음	사랑이 많은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뚝뚝하지만,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	기쁨과 마음의 평온을 주시는 분
18. 하나님 설명에 대한 변화	진실한 하나님 항상 바라바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확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한 이미지 회복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표현을 잘하고 교제하시길 원하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이미지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이미지
19. 자신의 신앙에 대해 주변인의 평가에 대한 기대	따뜻한 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잘살게 되었구나	인도자 하나님 -나약한 자신을 강하게 하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잘 모름
20. 면접 후의 기분과 생각	하나님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를 알게 됨	양육자의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됨을 경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

참고 문헌 Bibliography

-연구 방법론에 관한 참고문헌

Mason, Jennifer. *Qualitative Researching* 질적 연구 방법론. Translated by 김두섭. 서울: 나남출판사, 1999.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부, 200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이론적 근거에 관한 참고 문헌

Holmes, Jeremy.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존 볼비와 애착이론.* Translated by 이경숙. 서울: 학지사, 2013.

Marrone, Mario. *Attachment and Interaction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Translated by 이민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Rizzuto, Ana Maria. *The Birth of the Living God – A Psychoanalytic Study*–살아있는 신의 탄생. Translated by 이재훈, 유영권, 안석모, 황영훈, 반신환 and 정희성.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0.

Clair, Michael St.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Translated by 이재훈.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0.

Gerkin, Charles V. *The Living Human Document 살아있는 인간문서*. Translated by 안석모.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Migliore, Dania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Translated by 장경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McFague, Sallie. *Metaphorical Theology 은유신학.* Translated by 정애성, 서울: 다산글방, 2001.

Borg, Marcus J. *The God We Never Knew 새로만난 하느님*. Translated by 한인철,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Neuger, Christie C.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권수영. *자기, 문화 그리고 하나님 경험*, 서울: 크리스찬헤럴드, 2006.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미국정신분석학회.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정신분석용어사전.* Translated by 이재훈 et al.,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반신환. *신 형상에 대한 리주토의 대상 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종교연구. 서울:한국종교학회, 1997

이은실.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 Th.M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추원심. “애착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미간행 M.A.C thesis,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5.
이문경. “유아기 부모애착이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애착에 미치는 관계.” 미간행 Th.M thesis,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14.
김보미. “성인애착으로 본 신학생들의 신앙 양태와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Th.M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민성연. “애착표상으로서 부모와 하나님 형상 관계.” 미간행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원 대학교, 2012.
이향숙.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 관계.” 미간행 Ph.D.diss.,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조남희,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집단 목회상담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Ph.D.diss.,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 Website

김균진. “Sallie McFague 의“친구 하나님”모델.” http://stchopeter.blog.me/150041763013(Accessed Feb 13, 2017)